

시

동화 부문 당선 소감

시 부문 당선 소감

빛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달아나는지

선혜경

그런 걸 뭐하러 세어두고 있겠어,
당신은 꿈에서도 폭우가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나봐요,
창틀을 베고 누운 당신도 닫힌 서랍보다 늦게 녹
눅해지는데

궁금해
그런 날의 당신은
그림자 대신 검은 석유를 품고 다녔는지

그런 날의 빛방울에게서
풍경의 심장이 툭툭 떨어져 나갈 때
벌려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는지

새벽의 허를 길게 베어 문 촛불처럼
가장 빨리 죽는 건 악몽이라 믿으며

밤새 얼얼하게 녹아내리는 것들은 모두
내일의 미아가 되어 버리기를

품,
이라 발음하면
열어진 등불에 팔다리가 생겼는지

춧농이 굳어버린 하늘을 정면으로 마주치며
빛에 익사하길 바랐다

상처투성이의 손금을 털어내려고
손바닥을 자꾸만 흔들어도

온통 응덩이었다

모르는 사람의 초상을 여기저기 그리고 다녔다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갈까요”

시드니 여행 중 당선전화를 받았습니
다. ‘틀니를 찾아서’의 주인공 오루였다면 기뻐
서 앞돌기를 몇 십번은 했을 겁니다. 다른
장르의 글과 달리 동화를 읽고 쓸 때 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내면
아이가 너무나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그 아이가 슬프면
저도 슬픕니다. 그 아이가 기쁘면 저 역시
기쁩니다. 그 아이와 평생 함께 하고 싶습
니다.

〈틀니를 찾아서〉는 제 내면아이가 작중
개구리처럼 깔깔거리며 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글쓰기가 또 있을
까요. 저는 동화의 원초적 정서와 환상성에
매력을 느낍니다. 동화는 저를 마음껏 상상
하게 하고 마음껏 꾸꾸게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동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
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갈까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동화작가 임정진 교수
님과 ‘동화사랑’ 동아리 가족에게 감사드리
니다. 또한 제가 몸담았던 흥성문예아카데미
최종석 선생님과 회원들, 해미문예창작
반 김난주 선생님과 문우님들께도 감사드
립니다. 흥성신문 취재기자 시절 곳곳을 누

비며 취재를 한 경험과 치열한 마감의 과정
은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별난
둘째딸을 둔 부모님, 언니, 남동생에게 사
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호주에 있는 동안 현지에서 휴가를 내고
귀중한 경험을 선사해주신 형부 정말 최고
예요! 무엇보다 내면아이가 자기만의 춤을
출 수 있도록 신춘문예에 ‘작’ 붙여주신 배
다인 동화작가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주일보와의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장나현
▲서울디지털대학교 회화과 재학
▲2018년 충남 여성 청소년 문학제 대상

“아무것도 몰랐던 열다섯 살처럼 다시 시작”

무언가 말하고 싶는데 단어가 기억나지
않을 때 저는 시를 썼습니다. 내내 온몸이
간지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 편을 써도
이런 마음이 가시질 않았고, 제발 떠나가라
기도하며 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
다. 항상 마음은 언어나보다 앞섰고 나는 개
를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시만
큼은 제일 잘 알고 계속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와중 당선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기쁘다가 보단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
어요. 늘 곁에 있었던 시가 갑자기 처음 보
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시와 다시
통성명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
각들로 잠도 편히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일이라면 아무거나 열심히 해
야겠다고 다짐하며 며칠 동안은 몰두하고
있었는데, 닭살 돋듯이 간지러운 기분이 또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
다. 한 번 더 막무가내로 사랑 전해줘보야
겠다고. 아마 저는 내일도 무언가를 끄적거
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열
다섯 살처럼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제가 썼던 시마다 아낌없이 칭찬만 해주
셨던 나희덕 선생님 감사하고 보고 싶어요.

올 한 해 동안 자신의 시처럼 되고 방향을
같이 고민해주셨던 안희연 교수님 감사해
요. 지겹도록 내 시를 계속해서 읽어주었던
서연아와 늘 옆에서 응원해줬던 도영이 사
랑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도 많은 조언
해주셨던 조선대 문장과 교수님들, 문장과
시스터디, 당선 소식을 기뻐해주신 부모님도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시는 빠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약간은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써보려고 합니다.



선혜경
▲1996년 광주 출생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재학 중

동화 부문 심사평

시 부문 심사평

다양한 소재... 어린이 독자 위한 문학적 형상화

동화 창작에 앞서 우선 어린이를 위한 글
을 쓸 것인지, 어린이에 관한 글을 쓸 것인
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동화는 성인 독
자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독
자를 위한 문학작품이다. 하지만 본심에 올
라온 작품 중에 성인 작가의 관점에서 관념
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작품이 적지 않았다.
또한 문제의 상황을 꿈으로 처리해 문제에
대한 고심 흔적이 부족해 보였다.

다양한 소재로 각기 공들여 쓴 흔적이 느
껴졌지만 고정된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작품들은 먼저 제의가 됐다. 현 사회문제,
생명의 소중함, 자연과의 공감 등 따스한
시선의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지만 문학적
형상화가 미흡해 보였다. 결국 최종심에 올
른 ‘초록 이발관’, ‘빨간 내복’, ‘휴대폰 일
꾼 놀이체험’ ‘틀니를 찾아서’를 놓고 고심
을 하게 되었다.

‘초록 이발관’은 안정된 문체에 비해 감상
주의적 전개로 작품이 힘을 얻지 못했다. ‘빨
간 내복’은 독특한 구성미가 돋보였지만 형식
적 완성도 측면에서 아쉬웠다. ‘휴대폰 일꾼
놀이체험’은 현실적 문제를 재현적 전개로 잘
쓴 수작이 될 수 있었는데 결말 부분에서 한
계를 드러냈다. 숙고 끝에 ‘틀니를 찾아서’를

당선작으로 결정하는데 마음은 무거웠다.

‘틀니를 찾아서’를 당선작으로 결정한 가
장 큰 요인은 어린이 관점에서 쉽게 읽힌다
는 점과 캐릭터에 어린이 특성이 잘 녹아든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를 위한 동화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작가의 역량이 엿보
였다. 이점 때문에 결정보다는 감정에 힘을
실어 당선작으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더더
욱 치열한 독서와 글쓰기 단련을 통해 자신
만의 개성적인 작품을 써가길 고대하면서
당선을 축하드린다.



배다인
▲조선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
▲200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장편 ‘생각이 들리는 세계’ 등 작품집 다수

지나칠수 없는 곱돌함, 명랑한 머뭇거림의 미학

최종적으로 살펴본 작품은 ‘보성택 출항
기’, ‘스타킹을 신고’, ‘등뼈 해장국’, ‘빛방
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달아나는지’, ‘양
귀비와 사귀다’, ‘아버지의 창고’ 등의 원
고를 보낸 여섯 편의 작품이었다. 금년 신
춘문예에 투고 작품들은 이미지를 위주로 한
작품보다는 말하기 방식에 기댄 작품이 많
았다.

‘보성택 출항기’를 쓴 이는 시 쓰는 솜씨
가 안정되어 있으나, 자기만의 어법이 없
다. ‘스타킹을 신고’의 투고자는 ‘현재의 기
역은 늘 과거의 기억에 불친절 해’ 같은 구
절이 빛나지만, 몇 군데 시상 전개가 자연
스럽지 않은 점이 걸린다. ‘등뼈해장국’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솜씨가 좋
으나, 상상력에 새로움이 없다.

시는 모범 답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의 모든 답지를 지우고 난 후에 새로 쓴
한 줄의 고민 속에 있다. ‘양귀비와 사귀다’
의 투고자는 구어체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시상을 낯설게 전개하는 솜씨는 좋으나, 작
위적 수사가 많다.

‘아버지의 창고’를 투고한 이는 사투리를
굴리는 솜씨가 일품이다. 그러나 시는 일상
에서 주고받는 말을 그대로 옮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고민 끝에 ‘빛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
고 달아나는지’ 외 2편을 투고한 선혜경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는다.

선씨의 작품은 표면적으로 읽으면 시어
의 의미가 선명히 다가오지 않는다. 그 점
이 씨의 약점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곱돌함,
명랑한 머뭇거림이 있다. 속도 위주의 세상
에 이런 느낌 하나가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선씨의 손을 들어준다.



이대호
▲1994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
▲‘당신은 북천에서 온 사람’ 등 시집 다수
▲육사시문학상, 조태일문학상 등 수상

Advertisement for Wood Builders (우드빌더스) featuring a large house image and text: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Includes contact info: 062) 945-0036~7.